

#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 Subjectivity about Sexual Minority : A Q-methodology Approach

안이수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Lee-Su Ahn(whynot@shinhan.ac.kr)

### 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성소수자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21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3개의 성소수자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총 3가지의 유형인 제1유형(N=8) : 우호적 인권 중시형, 제2유형(N=5) :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제3유형(N=8) : 중립 추구형으로 분류되었다. 우호적 인권 중시형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중심어 : | 성소수자 | 주관성 | Q-방법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gnizance of sexual minority by applying Q methodology, as well a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improving sexual minority's image. The study process let P sample, the study participants, use Q-sorting methodology to sort Q sample, which is composed of statements from July 1 to 20, 2017. 21 participants sorted 32 statements and 3 types of sexual minority cognizance were produced as a result. Those types are 1(N=8), 2(N=5), and 3(N=8), which are type friendly human rights enthusiast, type whereas negative stereotypical, and type neutralist. Friendly human rights enthusiast types agreed to ensure sex minority groups' rights as a general protection, whereas negative stereotypical types had stro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s sex minority groups due to lack of related knowledge. Furthermore, neutralist types showed an objection to negative stereotypes against sex minorities, but they did not entirely agree to homosexuality either.

■ keyword : | Sexual Minority | Subjectivity | Q-methodology |

## I. 서론

‘성소수자’란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에 있어 주

류집단과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 성소수자 집단을 대표적으로 이르는 말로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

\* 본 논문은 2017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9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06일

교신저자 : 안이수, e-mail : whynot@shinhan.ac.kr

(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LGBT가 있다[1-3].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여 그들의 인권 및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동성 결혼 합법화, 미군의 동성애 허용 조치, 차별 금지법 도입, 성적 지향성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물이 도출되고 있다[4-7]. 한편 한국사회에서도 동성애자 모임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그러나 최근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HIV/AIDS를 질병적 접근이 아닌 동성애 혐오와 낙인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반인권적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8-10].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범사회적 지지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였지만[11-23], 이러한 단순 인구학적 속성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자를 세분화한 성소수자 이미지 제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4]. 따라서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선호 등이 고려된 성소수자 인식의 유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향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소수자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2.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화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성소수자의 개념과 유형

성소수자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Wirth(1945)는 소수자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집단과 구별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집단적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25]. Douglas(1966:유명기, 2004에서 재인용)는 소수자 정의를 인간 사회 질서는 질서가 부여된 순수라는 상징체계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오염된 대상인 위험이라는 상징체계가 있고, 정돈과 절제하는 '우리'와 일탈적이고 파괴적인 타자로 상징되며 타자의 개념이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26][27]. 또한 전영평(2006)은 소수자는 첫째, 신체적·문화적 특성에 의해 타 집단과 다름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둘째, 경제적·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사회구성원들 보다 뒤떨어지고 셋째,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넷째, 소수자 집단의식은 지속적 차별을 통해 전체적 연대의식으로 확대된다고 정리하였다[28][29]. 소수자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타 구성원과 다름을 내포하고 있기에 다양한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의 규범을 거부함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구제받지도 못한다[30].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소수자(minority)는 성, 연령, 경제력, 인종 및 종족,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 사회의 지배적인 힘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31]. 한편 전영평(2007)은 정책적 관점에서 소수자 문제 및 대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형분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다음 [표 1]과 같은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32].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 된다[33]. 성적 지향이란 상대에 대한 애뜻함과 선택,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열망, 신체적, 정신적 접촉에 대한 기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써, 성적 지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논의되는데 자신과 같은 성에 끌리는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다른 성에 끌리는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솔리는 양성애자(바이섹슈얼)로 통상 분류한다[34][35]. 또한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별정체성은 반드시 생물학적 성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을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36].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인지하는 트랜스 여성(male to female, 약칭 MTF),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인지하는 사람을 트랜스 남성(female to male, 약칭 FTM)으로 구분한다[37].

표 1. 소수자의 유형화와 예시

		조직화여부	
		집단화	비집단화
소수자 특징	신체적 소수자	유형1 (장애인)	유형2 (HIV/AIDS감염인/ 한센인)
	권력적 소수자	유형3 (탈북자)	유형4 (양심적병역거부자)
	경제적 소수자	유형5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유형6 (노숙자)
	문화적 소수자	유형7 (성소수자/ 일본군위안부)	유형8 (이주배우자/ 미혼모 )

## 2. 선행연구의 검토

과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편견, 낙인 등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낙인·편견과 성소수자의 건강 관련 연구들이다. 우선 성소수자들에 대한 주류집단의 차별·낙인·편견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개정을 주장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통한 성소수자 대책 및 문제점 해결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네덜 성소수자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 환경과 법적 시민권을 확보하기까지의 투쟁 과정을 분석하고[38], 동성애 피해자 보호법(Gay Shield Law)제안에 관한 최근의 미국의 논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동성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과 논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39], 동성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권리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40],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을 주장하고[41],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면서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장병들의 영내 생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42].

또한 성소수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낙인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련한 연구들도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행동적 대처방안은 이상적 정신건강을 유지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 인하여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 및 행동적 대처방안이 성소수자에게 긍정적인 심리기능을 가져다주었고[43],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적 자원과 심리적 역량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44].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나가는 기간이므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된다. 이 같은 주제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로 Curtis(1994)는 게이,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 청소년 22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 정체성 고민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높다고 보고하였고[45], 게이 및 레즈비언 청소년들 중에서 약물 남용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가족의 거부감을 경험 한 사람들의 50 % 이상이 성적 지향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46].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실태 연구[47], 학교 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적 개입을 주장한 연구[48], 학교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49], 청소년들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개입 전략을 주장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50]. 주류 사회는 성소수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성소수자의 건강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동성애자 집단과 이성애자 집단의 정신질환 유병율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으며[51][52], 기미경(2004)등은 국내 동성애자들의 생활환경 및 의식을 조사하고 성행태 및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고[53],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였다[54]. 김태희 등(2013)은 성전환여성에 대한 치료와 호르몬 관리에 대해서 고찰하였고[55],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의 대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56]. 그동안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성소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한 계량적 연구 및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은 다수였지만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선호 등을 고려한 성소수자에 대한 주관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하여 성소수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의 신념, 선호, 느낌과 같은 주관적 속성을 규명하고 유사한 속성을 유형화할 수 있고, 분석방법으로 자결적 정의에 따라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57][58]. 최근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주관성 탐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Q방법론은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간호학, 의학, 보건학, 교육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59]. 따라서 Q방법론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라 하겠다.

표 2. 연구순서 및 내용

1단계 Q표본선정	1. Q표본구성 -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총 100개의 진술문 생성 2. Q표본선정 - 중복어부와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
2단계 P표본선정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을 고려하여 21명 선정

3단계 Q분류	1. 가장 비동의에서 가장 동의까지 9점 척도를 적용하여 강제분포 시킴 2. 가장 비동의 및 가장 동의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대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4단계 자료처리	Q 주요인분석

#### 1. Q표본(Q-sample)

Q모집단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써 Q표본은 Q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되는데, 이를 선택하는 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추출된다.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동성애, 캠페인, 차별, 낙인, 자살, 전환 치료, 에이즈, 신변비관, 인식개선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헌고찰과 전문가 및 일반인 총 9명에게 성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보편적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연상 단어,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수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및 차별 등과 관련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총 100개의 진술문 후보군을 생성하였다[60-66]. 최초 Q표본은 비구조화 표본의 표집방법 중 하나인 난수표를 이용한 단순 무작위 표집 절차를 거쳐 50개가 선정되었는데, 본 연구 목적인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유형을 기술하고, 연구자에 선정의 편견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도출 방법이라 하겠다. 무작위 표집은 표본 크기에 대한 임의적 결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표본수를 너무 줄이면 차별적 요인들을 추출하기가 어려우며 그들 간의 차이에 관해 유의미한 해석이 어렵고 너무 많은 항목수는 Q표본의 신뢰도를 낮춘다. 또한 Q표본수의 판단은 항목 자체의 복잡성, Q응답자들의 상황, 각 연구의 특성에 의존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 더불어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보건학 연구자 각각 1명씩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Q표본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관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항목처럼 쉽고 빠르게 답을 할 수 없기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40개의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이후 사전검사(pre-test)와 Q sorting을 2회 반복 실시함으로 신뢰도를 확인한 후 각각의 진술문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인가를 판단하여 진술문의 균형을 점검하여 최종 32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58][66-68].

표 3. Q-sample로 선정된 진술문

Q 진술문
1.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2.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때의 나쁜 경험 때문이다.
3. 군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성소수자와 좌파가 연합한 중북세력이 교회파괴-가정해체-사회분열-국가전복' 을 노리고 있다.
5.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할 수 있다.
6.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
7.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의 대상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이 필요하다.
8.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축제) 중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및 복장 불량은 경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9. 동성애를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이다.
10. 성소수자는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행위이다.
12. 성소수자의 인권은 시기상조이다.
13.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는 오히려 자기혐오를 유발해 우울증,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14. 동성애자들은 모두 에이즈환자이다.
15.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16. 커밍아웃은 본인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이다.
17.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8. 평범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게이가 없고,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잘생긴 옷 잘 입는 남자가 게이이다.
19. 젠더(Gender,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는 생식기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20.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제한된 이미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21.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는가는 다름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니다.
22. 동성애는 죄다.
23. 동성애는 서구 자본주의의 퇴폐적 결과이다.
24.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로부터 '회복'시켜 '원래'의 이성애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성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26. 메르스 같은 전염병처럼 격리되어야 한다.
27. 동성애는 출산을 할 수 없기에 수용할 수 없다.
28.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9. 동성애자는 동물, 변태이다.
30. 이성애 중심적인 교과서가 바뀌어야 하며, 성적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 보건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이 동성애에 관해 공부하고 배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31. 동성커플은 결혼도, 입양도 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며,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2.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P-sample

Q방법론은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P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 요인의 수를 극도로 제한시키기 때

문에 소표본 원리에 따라야 한다[57][58]. P-표본의 구성은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톰슨의 스키마타'(Thompson Schemata)방식을 적용하여, 1) 성소수자에 관하여 특별한 흥미를 갖는 사람, 2) 성소수자에 대한 공평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3) 성소수자 주제에 있어서 전문가, 4) 성소수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심이 있는 사람, 5) 성소수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성소수자 상담 경험이 있는 의사, 사회복지학 및 여성학 전공 교수에서부터 성소수자의 정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이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범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21명을 선정하였다[표 4][69]. 그리고 [표 4]에서 나타난 인자 가중치는 그 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요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해당 요인의 전형적인 혹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조사로 분류되어, 2017년 6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IRB NO. SHIRB-201705-HR-031-02) 연구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4. 유형별 P 표본의 구성 및 인자가중치

유형	대상자	성별	나이	인자 가중치
1 (N=8)	1	여	56	.9976
	5	여	63	2.6834
	7	남	24	1.0092
	12	여	38	1.2133
	18	남	41	1.2053
	19	여	49	1.0682
	20	여	42	1.0221
	21	남	24	2.3007
2 (N=5)	10	남	24	1.9782
	11	남	37	.6511
	14	여	31	.7032
	15	여	33	1.8779
	16	남	44	.7654
3 (N=8)	2	남	50	1.162
	3	남	50	1.0254
	4	남	50	2.5495
	6	여	22	.9188
	8	여	22	1.2127
	9	남	25	2.5409
	13	여	37	1.5807
17	여	47	.7707	

### 3. Q-sorting

본 연구에서는 Q표본으로 선정된 32개의 진술문을 읽게 한 후 자신 생각의 차이에 따라 9점 척도로 강제 정규분포하도록 하였다. Q표본 분류과정은 진술문을 읽은 후 찬성(+), 중립(0), 반대(-)로 나눈 후, 찬성(반대)하는 진술문 중에서 적극 찬성(반대)하는 것을 골라 분류하도록 하였다[표 5]. 양극단의 진술문에 대한 선택 이유는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토록 하였다.

표 5. Q-sort 분포 모양

	가장 비동의				중립	가장 동의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2	4	5	6	5	4	2	2

## IV. 연구결과

아이겐 값이란 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나타내 주는 값이다.

즉, 요인을 설명해 주는 분산의 양으로써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한다( $EV = \sum f_i^2 = f_1^2 + f_2^2 + \dots + f_n^2$ ). 예컨대 1이상은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겐 값이 1이하이면 1개 요인이 1개 변수에 해당하는 분산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경우의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70]. 따라서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와 전체적인 설명변량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석한 후 명명하였다. 3개의 유형이 가지는 설명력은 69.55%이었고[표 6], 각 유형의 특성을 근거로 제1유형은 ‘우호적 인권 중시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명명되었다[표 7].

### 1. 제1유형 : 우호적 인권 중시형

제1유형은 전체적으로 단지 자기와 상이한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성소수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낙인화해 사

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성윤리라는 도덕적 잣대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사회적 단체행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는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견고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유형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문항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Q1). 동성애를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이다(Q9). 젠더(Gender,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는 생식기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Q19).’였다. 이에 비하여 ‘동성애는 죄다(Q22). 메르스 같은 전염병처럼 격리되어야 한다(Q26). 동성애자는 동물·변태이다(Q29).’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제1유형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인권적 시각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은 (Q1), (Q9), (Q19)이 결합되어 우호적 및 인권 중시적 구조를 드러내 준다. 반면에 (Q22), (Q26), (Q29) 의견은 성소수자의 인권 및 우호적 시각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 하겠다. 이들이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로는 “동성애는 옷을 고르는 취향처럼 개인적인 사항이며, 타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다르다는 이유를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중의 무지, 도덕적 비난과 차별, 편견, 배제 등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사회적 쟁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71].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1유형을 ‘우호적 인권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제2유형 :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제2유형은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하여 고정관념 및 편견 등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성애를 HIV 감염의 주원인으로 극대화시켜 동성애자들을 AIDS환자 또는 HIV감염인으로 낙인화 시켜 비

윤리적 집단인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비인권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72]. 또한 동성애는 출생이후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후천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문항은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Q6). 성소수자의 인권은 시가지조이다(Q12).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축제) 중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및 복장 불량은 경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Q8).’였다. 이에 비하여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Q15).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의 대상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이 필요하다(Q7). 군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되어야 한다(Q3).’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 유형은 (Q6), (Q12), (Q8) 등에서 나타나듯이 본인과 다른 성적체성 및 성적지향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반대 의견을 내는 반면에 (Q15), (Q7), (Q3) 등 성소수자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의견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는 목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성소수자를 생물학적인 요소 이외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종합적인(comprehensive)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73], 성소수자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2유형을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 중립 추구형

제3유형은 전체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소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와 관련되는 상황에 이르면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성적체성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부여되기도 하고 사회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후천적으로도 형성된다고 말한다[74]. 이러한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은 넓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자신과 관련되는 상황이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유형이 높은 동의를 보인 문항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Q28).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Q32).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Q1)’였다. 이에 비하여 ‘성소수자와 좌파가 연합한 중북세력이 교회파괴-가정해체-사회분열-국가전복’을 노리고 있다(Q4). 동성애는 죄다(Q22). 동성애자들은 모두 에이즈환자이다(Q14).’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제3유형은 (Q4), (Q22), (Q14), 등에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1유형과 마치 유사한 유형인 것 같지만, (Q28), (Q32) 등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상반된 유형이라 하겠다. 이들이 이러한 이중적 의견을 보인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에서의 이미지가 아직은 긍정적으로 바뀌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우호적이지만 막상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면 왠지 달갑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3유형을 ‘중립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각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1	유형2	유형3
아이겐 값	11.3880	2.1157	1.1013
변량	.5423	.1007	.0524
누적변량	.5423	.6430	.6955

표 7. 각 유형별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유형	Q-진술문	표준점수
제1유형	Q1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1.38
	Q9 동성애를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이다.	1.38
	Q19 젠더(Gender,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는 생식기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1.33

	Q22 동성애는 죄다.	-1.78
	Q26 메르스 같은 전염병처럼 격리되어야 한다.	-1.77
	Q29 동성애자는 동물·변태이다.	-1.47
제2유형	Q6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	2.54
	Q12 성소수자의 인권은 시기상조이다.	1.69
	Q8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축제) 중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및 복장 불량은 경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1.52
	Q15.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1.89
	Q7.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의 대상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이 필요하다.	-1.51
	Q3. 군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1.48
제3유형	Q28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96
	Q32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	1.74
	Q1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1.44
	Q4 성소수자와 좌파가 연합한 중복세력이 교회파괴-가정해체-사회분열-국가전복'을 노리고 있다.	-2.08
	Q22 동성애는 죄다.	-1.65
	Q14 동성애자들은 모두 에이즈환자이다.	-1.64

## V. 토의

낙인화는 본인과 다른 시각을 가진 집단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인데,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차별, 편견, 혐오, 부정적 고정관념 등을 말한다[75][76]. 지난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많은 학문적 근거를 생산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애적 성관계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다[77-81]. 이러한 이유로 성소수자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정신병리학적 문제에 여과 없이 드러나 삶의 질이 저하된다[82]. 또한 낙인으로 인한 의료제도의 부족, 정보의 제한,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적으로 만든다[83]. 잘못된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은 향후 성소

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착화시켜 소모적인 사회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넓혀주기 위한 정부의 교육, 보건, 법률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제1유형인 ‘우호적 인권 중시형’은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9]. 이 유형은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권적 행태들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성소수자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은 이성애 중심적인 대화와 행동이 성소수자들에게 상처가 됨을 인지하고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47].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역시 차별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HIV감염인 및 에이즈환자, 빈곤층 등에게 행해지는 모든 비인권적 관행들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에 지지를 밝힌다. 예컨대 동성애자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관념적 인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성소수자들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30]. 이와 같은 결과는 성소수자의 차별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교과과정 도입, 일선 교사·교직원·교사 교육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의료진의 문화적 역량 증진 등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83-85]. 이에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인권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수용자의 주관적 성향을 기준으로 세분화시킨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2유형인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은 최근의 성해방 풍조는 이성애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사회질서와 함께 존재할 수 없기에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성애 관계가 지닌 불완전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한다. 예컨대 동성애 관계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동성애적 성충동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 또한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호의적 사회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결혼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은 해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항하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비도덕적이고 죄라고 생각하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86]. 선행연구에서 성소수자 담론은 고정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87-89]. 이렇듯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모두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라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공중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유형인 ‘중립 추구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유형이다. 즉,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찬성하고 동성애를 병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특히 이 유형의 특징은 본인들이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시혜적이고 감성적인 동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동성애적 성향은 일부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동성애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형이다. 즉,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도덕적 부담이 가벼울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82]. 이러한 유형에게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명인을 이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나 엘렌 페이지,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면서 동성애 그 자체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9].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 및 태도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Q방법론을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의 주관적 구조와, 각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여 향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관점은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우호적 인권 중시형, 중립 추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Q방법론상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Q표본 추출과정에서 실시한 무작위 표집은 연구자에 의한 선정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표본 크기에 대해 불필요한 임의적 결정을 해야 함과 Q모집단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시한다는 단점을 갖는다[59]. 후속 연구에서는 범주로부터 진술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모집단을 구축할 때 입수했던 정보를 이용하여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확산을 막는 공중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마련하여 일반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71]. 둘째, 인격 형성 시기인 10대를 중심으로 하는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과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84].

## 참고 문헌

- [1] 한인섭, 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공익과인권 제4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2.
- [2] 김지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 *동향과 전망*, 제96권, pp.153-178, 2016.
- [3] S. H. Dworkin and H. Yi. “LGBT Identity, Violence, and Social Justice: The Psychological

- is Political,”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25, No.4, pp.269-279, 2003.
- [4] R. Bayer,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The politics of diagnosis*, New York: Basic Books, 1981.
- [5] J. Drescher and J. P. Merlino, *American psychiatry and homosexuality: An oral history*,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2007.
-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1980.
- [7] <https://www.nytimes.com/2015/06/27/us/supreme-court-same-sex-marriage.html>
- [8]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96074.html>
- [9] <http://lgbtpride.tistory.com>
- [10] <http://sev.iseverance.com>
- [11] V. C. Cass, “Homosexuality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Vol.4, No.3, pp.219-235, 1979.
- [12] G. J. Gates, “LGBT Identity: A demographer’s Perspective,”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Vol.45, No.3, pp.693-714, 2012.
- [13] K. A. Renn, “LGBT Student Leaders and Queer Activists: Identitie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Identified College Student Leaders and Activis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8, No.3, pp.311-330, 2007.
- [14] M. G. Worthen, “An Argument for Separate Analyses of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Men, Bisexual Women, MtF and FtM Transgender Individuals,” *Sex Roles*, Vol.68, No.11-12, pp.703-723, 2013.
- [15] G. M. Herek,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Bisexual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Vol.39, No.4, pp.264-274, 2002.
- [16] M. J. Eliason,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Biphobia in Heterosexual Undergraduat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26, No.3, pp.317-326, 1997.
- [17]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18]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Vol.36, pp.43-76, 2014.
- [19] 이호림, *소수자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이수진, *드러내기를 중심으로 본 동성애자의 정신건강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1] 김경호,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Vol.10, No.2, pp.135-168, 2009.
- [22] 이영선, 김소라, “사이버상담으로 호소된 남자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Vol.18, No.1, pp.93-112, 2010.
- [23] 조대훈,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동의 영향 변인 연구 :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Vol.43, No.1, pp.205-237, 2011.
- [24] 안이수, “AIDS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Q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10, pp.46-53, 2016.
- [25] Louis Wirth,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R. 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347-372, 1945.
- [26] M. Douglas, *Purity and dang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 [27]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 [28]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문제와 소수자정책 연구 관점: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행정학회*

-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06.
- [29] 전영평, 한승주,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 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Vol.15, No.2, pp.157-184, 2006.
- [30] 정재진, 전영평, "동성애 소수자의 차별저항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 Vol.15, No.4, pp.207-240, 2006.
- [31] 구정화,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Vol.45, No.3, pp.31-53, 2013.
- [32]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Vol.13, No.2, pp.107-131, 2007.
- [33] 나영정,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진보평론, Vol.63, pp.228-257, 2015.
- [34]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지향*,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사진, 2017.
- [35] <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pdf>.
- [36] <http://www.apa.org/topics/sexuality/transgender.pdf>.
- [37] J. M. Grant, L. Mottet, J. E. Tanis, J. Harrison, J. Herman, and M. Keisling, *Injustice at every turn: A report of the National Transgender Discrimination Survey*,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2011.
- [38] 김관석, "네पाल 공공부분의 다양 촉진에 관한 연구: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Vol.19, No.2, pp.1-25, 2016.
- [39] 류병관, "미국 형사절차상 동성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pp.295-315, 2016.
- [40] 박혜영, "동성결혼과 입양, 대리모 허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법학연구, Vol.23, No.3, pp.147-171, 2015.
- [41]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Vol.15, No.3, pp.165-203, 2014.
- [42]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균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Vol.18, No.1, pp.59-89, 2012.
- [43] 김은경, 권정혜,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Vol.23, No.4, pp.969-981, 2004.
- [44] 윤성옥, 성승연,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Vol.23, No.4, pp.1017-1049, 2011.
- [45] Curtis D. Proctor and Victor K. Groze,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Social Work*, Vol.39, No.5, pp.504-513, 1994.
- [46] Tracie L. Hammelman MSW, "Gay and Lesbian Youth: Contributing Factors to Serious Attempts or Considerations of Suicide," *Journal of Gay & Lesbian Psychotherapy*, Vol.2, No.1, pp.77-89, 1993.
- [47]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48] 장서연, 한가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사건을 중심으로*, 제3회 SOGI 콜로키움 자료집, 2014.
- [49] 조대훈,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사건을 중심으로*, 제3회 SOGI 콜로키움 자료집, 2014.
- [50] 이영선, 김소라, "사이버상담으로 호소된 남자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Vol.18, No.1, pp.93-112, 2010.
- [51] 강병철, 하경희,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12, No.3, pp.267-289, 2005.
- [52]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

- 의학, Vol.41, No.5, pp.930-941, 2002.
- [53] 기미경, 박철민, 장창곡, 고운영,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인식," 예방의학회지, Vol.37, No.3, pp.220-224, 2004.
- [54] 강병철, 하경희,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권리연구, Vol.10, No.3, pp.425-440, 2006.
- [55] 김태희, 이해혁, 문원실, "성전환여성(남성에서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대한폐경학회지, Vol.19, No.2, pp.45-53, 2013.
- [56] 주혜주, "HIV 감염인의 대처과정: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Vol.17, No.1, pp.97-108, 2008.
- [57] H. K. Kim, "Q Methodology and Creation of Advertising Message," Operant Subjectivity, Vol.20, pp.28-29, 1997.
- [58] 김홍규, *Q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59] 김홍규, "Q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Vol.1, pp.15-23, 1999.
- [6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06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064.html)
- [6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572.html>
- [6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03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034.html)
- [63] <http://lgbtpride.tistory.com/1188>
- [64] 동성애자인권연대, 지승호,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 하다: 두려움에서 걸어 나온 동성애자 이야기*, 시대의 창, 2011.
- [65] 박지훈, 이진,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젠더&문화, Vol.28, pp.5-42, 2013.
- [66] 윤은자, 김현정, 전미순, 윤정아, "연명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비교," 주관성 연구, Vol.25, pp.21-34, 2012.
- [67] 전미영, 김명희, 조정민, "노화에 대한 주관성 연구:코오리엔테이션의 시각," 주관성연구, Vol.14, pp.129-145, 2007.
- [68] 양창훈, 이제영, "Q방법론을 활용한 공직선거 광고의 주관적 수용인식 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pp.115-126, 2013.
- [69] G. C. Thompson,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 [70] 원용희, *관광이미지*, 백산출판사, 2003.
- [71] 정의철, *헬스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72] 윤지효, 전아람, 최기원, 홍진영, "연구 노트: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자를 동일시하는 차별관념에 의한 인권침해 -헌혈시 문진사항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Vol.1, No.1, pp.153-177, 2004.
- [73]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고등학교지도서*, 2015.
- [74] 콜린 윌슨, 수잔 타이번, 정민 역,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사슬 끊기*, 연구사, 1998.
- [75] 손애리, 문정선, 신승배, 천성수, 김성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구조모형을 이용한 에이즈 낙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 Vol.23, pp.31-56, 2008.
- [76] L. Brown, K. Macintyre, and L. Trujillo, "Inventions to Reduce HIV/AIDS Stigma: What Have We Learned?," *Education and Prevention*, Vol.15, No.1, pp.49-69, 2001.
- [7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1980.
- [78] J. C. Gonsiorek and J. D. Weinrich, *The empirical basis for the demise of the illness model of homosexuality in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1991.
- [79] B. Risman and P. Schwartz, "Sociological research on male and female homosex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125-147, 1988.

- [80] K. A. Tikkinen, J. S. Leinonen, G. H. Guyatt, S. Ebrahim, and T. L. Järvinen, "What is a disease? Perspectives of the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nd legislators," *BMJ open*, Vol.2, No.6, e001632, 2012.
- [81] 이라영, *여자사람, 사람*, 롤링다이스, 2013.
- [82] M. L. Hatzenbuehler, "How does sexual minority stigma "get under the skin"? A 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 *Psychol Bull*, Vol.135, No.5, pp.707-730, 2009.
- [83]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사회적 낙인과 의료적 주변화," *한국사회학*, Vol.51, No.2, pp.155-189, 2017.
- [84] 신경희,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여성 예비교사들의 성소수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33, No.2, pp.245-279, 2017.
- [85]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4.
- [86] 이종원,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64, No.1, pp.281-303, 2009.
- [87] 정원희,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감정의 동학과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48, No.2, pp.165-202, 2014.
- [88] 한채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증오하는가?," *인물과사상*, Vol.213, No.1, pp.114-127, 2016.
- [89] 박지훈, 이진식,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Vol.28, pp.5-42, 2013.

저 자 소 개

안 이 수(Lee-Su Ahn)

종신회원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보건정책